

소감문

광명교회
고3 김성현

5박6일 길고도 짧은 하가다 캠프를 다녀왔다. 처음에는 방학동안에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가겠다고는 했지만 되게 불안했고 재미없을 것 같았고 기대는 전혀 되지 않았다. 오랜시간 차를 타고 도착 했지만 역시 정신없고 재미도 없었다. 둘째 날까지는 내 생각대로 별로 재미없었고 하가다도 게임형식으로 많이 하기도 했지만 재미없었고 말씀도 내 마음에 큰 감흥이 없었다. 우리 교회랑은 거의 다 떨어져서 놀 사람도 없었다. 맨날 강의하고 말씀 읊조리고 성령집회만 하였는데 성령집회때는 진짜 무서웠다. 예배가 끝나갈 때 목사님이 성령체험?을 해주셨는데 성령 받으라고 격렬하게 해주시는데 막 큰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을 잡고 돌리고 넘어뜨리고 장난아니었다. 나는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봐서 되게 무서웠고 계속 도망다녔다. 진짜 너무 무서웠고 지루했다. 시간도 엄청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. 그렇게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셋째날이 되었다. 셋째날도 똑같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 성령집회때는 목사님이 찬양을 콘서트처럼 해주셔서 진짜 재밌었다. 목이 쉬도록 찬양을 부르고 뛰어다니고 진짜 신나게 놀았다. 이 후로 계속 신나게 찬양하고 나서 모든게 다 재미있었다. 하가다 시간에도 그저 재미없었는데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. 그렇게 나머지 넷째날, 다섯째날, 마지막 날까지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읊조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. 맨 처음에는 5박6일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더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아쉬웠다. 정말 기억에 남을 캠프였고 너무 좋았지만 아쉬웠다.